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

서명자¹, 오윤정^{2*}, 이은미³

¹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생, ²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³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Human Rights Awareness,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Myeong-Ja Seo¹, Yun-Jeong Oh^{2*}, Eun-Mi Lee³

¹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³Professor, Dep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2년 11월 5일까지 G시 소재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은 간호윤리교육 유무,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인권의식은 공감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으로서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간호교육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 인권, 의식, 공감, 다문화수용성,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and correlate the degree of human rights awareness,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75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G City from October 11, 2022 to November 5,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WIN 2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nursing student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nursing ethics education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foreign or migrant friends. As a result of this study, human rights awarenes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mpath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human rights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nursing education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s professionals.

Key Words : Human rights, Awareness, Empathy,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Nambu University, 2022.

*Corresponding Author : Yun-Jeong Oh(2000-tiger@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6, 2023

Revised October 11, 2023

Accepted December 20, 2023

Published December 28, 2023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최근 15년 동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4배 이상 급속하게 증가했는데, 2021년 11월 기준 2,134,569명으로 총 인구 대비 4.1%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1,649,967명(77.3%, 전년 대비 2.7%↓), 한국국적취득자 210,880명(9.9%, 전년 대비 5.9%↑), 외국인주민 자녀 273,722명(12.8%, 전년 대비 4.6%↑)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 수가 많은 시·도는 경기 714,497명(33.5%), 서울 426,743명(20%) 순이었으며,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충남이 5.7%로 가장 많았고, 유학생은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변화는 한국 내에서 다문화 경험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있다[2].

인권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는데, 성, 연령, 인종, 종교, 국적 및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 보장되어야 한다[3]. 인권의식은 사회의 구성원에 제공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존중하고 수호하며, 옹호하는 태도이다[4]. 대학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고등교육기관이므로,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의 인권의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인권에 대해 더욱 민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더욱 중요시된다[5].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기분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상태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말하는데[6],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7]. 특히 간호대학생에 있어 공감능력은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간호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8].

다문화수용성은 다른 사람이 속한 문화에 편견적 인식이 아닌 상호 간 협력하는 수용적인 태도로 사회를 주로 구성하는 거주민이 다문화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적응능력을 말한다[9]. 간호대학생은 향후 다문화 간호를 담당할 예비간호사로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용적 태도를 준비하며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10].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국내 거주 외국인 수

와 국내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1].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다문화 대상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차별적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12]. 하지만 다문화 대상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의료진과의 관계에 있어 건강과 질병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 행동의 차이와 이로 인한 문화적 이견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편견이나 차별도 경험하게 된다[12].

보건 계열의 대학생은 미래의 건강관리 제공자로서 직접적인 건강관리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데,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분석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협력적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필요하다[2].

한편 간호학은 인본주의를 기초로 한 돌봄을 본질로 하는데,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건강권을 추구하고 근 본적으로는 인권옹호에 대한 철학적 이념을 가진 학문이다[13]. 간호사는 직업으로써 뿐 아니라 대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중과 그들을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건강 문제가 얽혀있는 임상현장에서 인권 옹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14]. 간호사의 개별적 역량은 환자에 질적 간호를 제공하고 대상자와의 원활한 관계와 다양한 간호 제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간호 업무의 수행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12]. 하지만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 다문화 대상자들에게 전문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단기교육을 통해서 이루기는 어려우므로 간호교육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1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은 다문화감수성과다문화감수성과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 15]. 따라서 미래의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과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교육 제공의 방향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과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증진을 위한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과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과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과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과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 소재 일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사전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료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3,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산정했을 때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최소 138명으로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8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5부를 제외한 175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2년 11월 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전달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조사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참가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연구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설문지에 성실히 응답한 것에 대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인권의식

인권의식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한국인의 인권의식에 관한 조사 중 현안과 정책 부분인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에 대해 조윤경[1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윤경[1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 이었다.

2.4.2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전병성[17]이 재구성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 요소로 인지 공감 15문항, 정서 공감 15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이다. 이 중 부정형의 6개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병성[17]의 연구에서 도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 이었다.

2.4.3 다문화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안상수 등[18]의 연구에서 사용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Korea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요소로 다양성 14문항, 관계성 12문항, 보편성 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6점 Likert 척도이다. 이 중 부정형의 23개 문항은 역환산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 이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과 공감

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인권의식과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는 175명이고, 평균 연령은 20.85±3.01이었다. 이 중 여학생은 132명(75.5%), 남학생은 43명(24.5%) 이었고, 학년은 1학년 56명(32.0%), 2학년 71명(40.6%), 3학년 48명(27.4%) 이었다. 대상자의 간호윤리교육 경험은 '있다' 117명(66.9%), '없다' 58명(33.1%) 이었고, 다문화교육 경험은 '있다' 148명(84.6%), '없다' 27명(15.4%) 이었다. 해외여행 경험은 '있다' 99명(56.6%), '없다' 76명(43.4%) 이었고, 해외거주 경험은 '있다' 9명(5.1%), '없다' 166명(94.9%) 이었다.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는 '있다' 29명(16.6%), '없다' 146명(83.4%) 이었고,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교류경험은 '있다' 84명(48.0%), '없다' 91명(52.0%) 이었다.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경험은 '있다' 15명(8.6%), '없다' 160명(91.4%)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ge(year)	Range 17~46	20.85±3.01
Gender	Female	132(75.5)
	Male	43(24.6)
Grade	1st	56(32.0)
	2nd	71(40.6)
	3rd	48(27.4)
Ethics-educated experience	Yes	117(66.9)
	No	58(33.1)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Yes	148(84.6)
	No	27(15.4)
Overseas travel experience	Yes	99(56.6)
	No	76(43.4)
Overseas stay experience	Yes	9(5.1)
	No	166(94.9)
Foreign friend	Yes	29(16.6)
	No	146(83.4)
Interaction with multiculturalism	Yes	84(48.0)
	No	91(52.0)
Conflict with multiculturalism	Yes	15(8.6)
	No	160(91.4)

M±SD, Mean±Standard deviation.

3.2 대상자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인권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37±0.33점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7±0.43점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문화수용성은 6점 만점에 평균 4.24±0.6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human rights awareness,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175)

Variables	Range	Min	Max	M±SD
Human rights awareness	1-5	2.43	4.36	3.37±0.33
Empathy	1-5	2.23	4.73	3.47±0.43
Multicultural acceptability	1-6	2.46	5.57	4.24±0.61

M±SD, Mean±Standard deviation.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인권의식은 해외여행 경험,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으며($t=-3.551, p<.001$),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t=-1.713, p=.015$).

공감능력은 해외여행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t=-2.603, p=.009$). 다문화수용성은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교류경험,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수용성은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가 없는 경우가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가 있는 경우보다 높았으며($t=-3.233, p<.001$),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교류경험이 없는 경우가 교류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았고($t=-2.266, p=.025$), 또한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경험이 없는 경우가 갈등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았다($t=-4.063, p<.001$).

Table 3. Difference of the human rights awareness,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175)

Variables	Categories	Human rights awareness	t/F (p)	Empathy	t/F (p)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F (p)
		M±SD		M±SD		M±SD	
Gender	Male	3.26±0.31	-2.550 (.251)	3.58±0.46	1.812 (.939)	4.00±0.68	-3.112 (.358)
	Female	3.40±0.33		3.44±0.42		4.32±0.56	
Ethical educated	Yes	3.39±0.28	.275 (.784)	3.50±0.41	1.193 (.235)	4.20±0.56	-1.162 (.248)
	No	3.36±0.41		3.41±0.46		4.32±0.70	
Multicultural education	Yes	3.37±0.34	-.367 (.716)	3.49±0.43	1.338 (.189)	4.25±0.58	.199 (.844)
	No	3.39±0.30		3.38±0.40		4.22±0.75	
Overseas travel experience	Yes	3.47±0.32	-3.551 (.001)	3.57±0.40	-2.603 (.009)	4.26±0.65	.413 (.680)
	No	3.30±0.32		3.40±0.44		4.22±0.56	
Overseas stay experience	Yes	3.28±0.27	-1.068 (.312)	3.52±0.43	.348 (.728)	4.07±0.53	-.873 (.384)
	No	3.38±0.33		3.47±0.43		4.25±0.61	
Multicultural friend	Yes	3.39±0.34	-1.713 (.015)	3.36±0.43	-1.536 (.126)	3.91±0.54	-3.233 (.001)
	No	3.28±0.19		3.50±0.43		4.31±0.60	
Interaction with multiculturalism	Yes	3.37±0.34	.048 (.962)	3.46±0.47	-.539 (.591)	4.14±0.66	-2.266 (.025)
	No	3.37±0.32		3.49±0.39		4.34±0.54	
Conflict with multiculturalism	Yes	3.27±0.44	-1.256 (.210)	3.45±0.59	-.190 (.850)	3.85±0.37	-4.063 (.001)
	No	3.38±0.31		3.48±0.41		4.28±0.61	

3.3 대상자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권 의식과 공감능력($r=.261, p<.001$)은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다문화수용성($r=.059, p=.436$) 과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Correlation of human rights awareness,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175)

	Human rights awareness	Empathy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p)	r(p)	r(p)
Human rights awareness	1		
Empathy	.261 (.001)**	1	
Multicultural acceptability	.059 (.436)	.006 (.938)	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인권 의식 정도는 5점 만점에 3.3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연구한 Jeon과 Hwang[2]의 3.67점, 다른 도구로 연구한 Bae와 Kang[4]의 3.57점보

다 낮았지만 중간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이 필수로 시행되고 있고, 간호학과 고학년의 경우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환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과 존중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인권의식이 향상된 것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은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와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가 있는 경우가 높았다. 이는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 여부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Jeon과 Hwang [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향후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감능력 정도는 5점 만점에 3.4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도구를 이용해 연구한 Ahn과 Noh[10]의 3.74점, Song, Yang과 Park[19]의 3.73점보다 낮았으나 중간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는데, 공감능력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적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간호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경험하도록 하거나 가상 체험을 통한 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문화수용성 정도는 6점 만점에 4.24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해 연구한 Bae와 Kang[4]의 4.62점보다 낮았으나, Ahn과 Noh[10]의 4.31점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은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가 없는 경우, 외

국민이나 이주민과의 교류경험이 없는 경우,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경험이 없는 경우가 높았다. 이는 Jeon과 Hwang[2]의 연구와 Bae와 Kang[4]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 극히 제한된 학교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된 후 반복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인권의식은 공감능력($r=.261, p<.001$)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문화수용성($r=.059, p=.436$)과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이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Bae와 Kang[4]의 연구, Kim[15]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COVID-19 상황의 대학교는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 시 마스크 착용과 타인과의 대화와 접촉 최소화를 시행하였는데, 간호대학생들은 미뤄지는 대면 만남으로 교우관계 교류가 부족하고 대학생활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었다[20]. 더욱이 간호대학생이 필수로 경험해야 하는 병원실습에서도 안전을 위해 직접 환자를 경험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간호대학생은 사회생활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양한 대상자와 만나는 경험이 제한적이며, 타문화 및 타민족에 대한 태도가 낮을 수도 있다[21]. 이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국내인은 물론 다문화 대상자와의 축소된 경험은 긍정적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보건의료인은 전문가로서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 필수적이다[9].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의료현장을 책임질 예비간호사로서 인간의 생명과 권리에 대해 확고한 가치관이 필요한데, 다문화 시대의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의식과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인권의식과 공감능력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일 지역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반복연구 제안한다. 또한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다문화수용성을 함양하고 다문화 간호에 전문적인 간호사를 양

성할 수 있도록 간호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ress release. Available at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96092 [accessed on September 10, 2023]
- [2] M. S. Jeon & Y. Y. Hwang. (202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wareness,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multicultural 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12(1), 1-9.
- [3] J. Y. Kim. (2012). *A study on typology and influence factors of youth's human rights conscious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of Korea, Seoul.
- [4] J. H. Bae & H. J. Kang. (2022). The effect of social interest, human rights aware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2), 367-378.
- [5] S. W. Hong., J. S. Kim & H. J. Han. (2011).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influencing facto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6), 260-269.
- [6] M. H. Davis.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7] S. K. Lee. (2017). The relation of empathy, intercultural sensitivity,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efficacy of pre-service teacher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3(2), 263-281.
- [8] B. Dewar & M. Nolan. (2013). Caring about caring: developing a model to implement compassionate relationship centred care in an older people care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50(9), 1247-1258. DOI : 10.1016/j.ijnurstu.2013.01.008
- [9] K. H. Kim. (2018).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8), 211-219.

- [10] S. R. Ahn & Y. G. Noh. (2020). Effects of empathy abil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5(1), 30-36.* DOI : 10.21032/jhis
- [11] S. K. Park., S. H. Jeong & H. S. Kim. (2018). The effect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5), 2698-2710.*
- [12] H. J. Park & H. O. Park. (2020). Influence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Multiculture & Peace, 14(2), 140-159.*
- [13] S. W. Hong., J. S. Kim & H. J. Hyun. (2011).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influencing facto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6), 260-269.*
- [14] N. S. Ha & J. Choi. (2011). A longitudinal study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8(2), 73-85.*
- [15] S. Y. Kim. (2020). The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0(2), 11-22.*
- [16] Y. K. Cho. (201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human-rights awareness and self-consciousness to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Jeju.
- [17] B. S. Jeon.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Daejeon.
- [18] S. S. Ahn., I. S. Kim., K. H. Ma., H. Y. Moon & M. J. Lee. (2015). *Research on national multicultural acceptance.*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Korean.
- [19] E. J. Song., Y. K. Yang & S. K. Park. (2016). Effect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pathy on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4), 347-355.*
- [20] S. Heo & I. J. Jeong. (2022). Experiences of

nursing freshme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during the COVID1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12(1), 71-83.*

- [21] I. S. Rho. (2021). Theme-focused content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tion in a multicultural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11(2), 73-83.* DOI : 10.33502/JKSMH.11.2.073

서명자(Myeong-Ja Seo)

[정회원]



- 2019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석사)
- 2021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박사 수료)

- 관심분야 : 기본간호, 핵심간호, 시뮬레이션
- E-Mail : smj7842@nate.com

오윤정(Yun-Jeong Oh)

[정회원]



- 1997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13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0년 4월~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건강사정, 간호교육
- E-Mail : agnes@nambu.ac.kr

이은미(Eun-Mi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13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2년 3월~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정신건강간호, 의사소통
- E-Mail : jjang9312@nambu.ac.kr